

제 목 : 한국은행,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

-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」, 2026.7.23일)
 - 이를 위해 특정 부문이 아닌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·운용하는 「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」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(2027년 하반기)
 - 또한,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간 조정을 통해 「지방중소기업지원」 한도를 증액(2027년 상반기)
 - 다만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어 온 준재정적 성격의 「무역금융지원」과 「신성장·일자리지원」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- 이 과정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총한도(30조원)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,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

(붙임)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

문의처 :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팀장 우신욱, 차장 정우재, 과장 한대성
Tel (02) 759-4491, 4502, 4515

공보관 : Tel (02) 759-4028, 4016

“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
THE BANK OF KOREA

(붙임)

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

2026. 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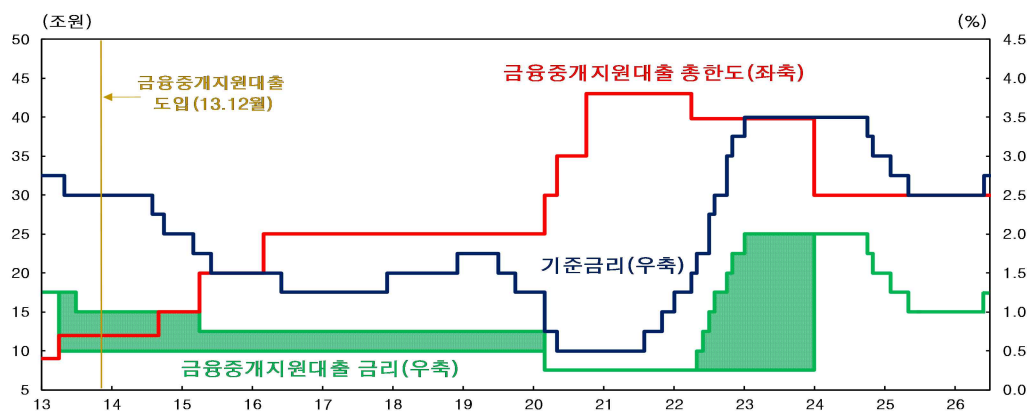
한국은행

- (제도의 취지)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여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수단*임

* <참고> 「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현황」 참조

- 이를 통해 신용경로를 통한 금리정책의 파급효과를 보완하여 통화정책의 목표인 물가 및 금융 안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주된 목적
- (운용 성과) 동 제도는 2013년 개편된 이후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및 전체 신용에 영향을 주어 경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
 - 은행이 자체 조달자금과 함께 한국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공급받은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자부담이 완화
 - 경제 전체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가 조정될 경우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신용에 영향을 미쳐 통화정책의 신용경로를 보완
 - 특히 코로나19 위기 시에는 기준금리의 실효하한 근접으로 금리정책 운용이 제약된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확대를 통해 경기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

기준금리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·금리¹⁾



주 : 1) 녹색 음영은 대출 금리가 프로그램별로 차등 운영되던 시기의 상단·하단 금리의 차이

□ (개선 필요성) 그러나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*

* 2025년 12월 「통화정책 컨퍼런스」 등을 통해 학계 및 시장전문가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

- 특정 부문을 선별 지원하는 준재정적 성격이 상존하는 가운데 지원규모 등이 장기간 고정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운용이 제약
- 또한 부문 간 격차, 정책변수 간 상충 등으로 기준금리 보완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
- 아울러 그간 경제규모 확대 등 정책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점증

⇒ 향후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 지원대출 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

1. 기본 방향

□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고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

①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·운용하는 「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*」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

* 그간에는 한국은행이 사전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의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였으나, 동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한 요건 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

② 수도권에 비해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간 조정을 통해 「지방중소기업지원」 한도를 증액

③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어온 준재정적 성격의 「무역금융지원」과 「신성장·일자리지원」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·폐지

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변화

현재	개편 후
■ 무역금융지원	단계적 축소·폐지
■ 신성장·일자리지원	단계적 축소·폐지
■ 지방중소기업지원	■ 지방중소기업지원 (한도 확대 ¹⁾)
■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	기 예정기한까지 한시 운용
	■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(신설 ¹⁾)

주: 1) 향후 확보되는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가용한도를 활용

2. 세부 내용

- (「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」 도입)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한도 및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(2027년 하반기 예정)
 - 지원대상 대출은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은행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
 - 다만, 정책자금 연계, 일부 업종(부동산업 등) 대출 등은 제외하고 저신용등급, 무담보신용 및 낮은 업력의 기업 등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취약부문 및 생산성 높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장치도 마련
 - 또한,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배정 확대 및 대출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간 경쟁 촉진을 위해 참가기관에 기존 은행(시중·지방·특수은행) 외에 인터넷전문은행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
- (「지방중소기업지원」 증액) 수도권에 비해 금융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제상황 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폭 확대(2027년 상반기 예정)
 - 그간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장기간 한도가 고정(5.9조원)·운용되어 온 점도 고려
 - 증액분을 포함한 「지방중소기업지원」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 배분은 그간의 금융·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

- (준재정적 프로그램 축소·폐지) 특정 부문에 대해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어온 「무역금융지원」과 「신성장·일자리지원」 프로그램은 축소·폐지(2027년 이후)
 - 동 프로그램들은 해당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상황에 따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신축적인 운용을 제약
 - 여타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
 - 다만 기존 대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시에 폐지하기 보다는 프로그램별로 점진적으로 축소·조정해 나갈 예정
 - 2027년중 각 프로그램별 신규 대출취급 지원기한을 미리 공지하고 이후 기존 대출의 만기까지는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 수혜기업의 자금조달·운용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

III

추진계획

■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총한도(30조원)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,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

□ (단기) 총한도(30조원)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프로그램 간 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

① (「지방중소기업지원」 증액, 2027년 상반기) 한시적 지원 조치*를 만기 시까지 계속 지원하고 향후 확보되는 가용한도를 활용하여 「지방중소기업지원」 한도를 증액

* 2024년 2월 도입된 이후 「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」(한도 14조원)은 그간 운용기한을 세 차례 연장하여 2027년 8월말까지 지원(신규 취급은 금년 7월말까지 지원)

② (「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」 도입, 2027년 하반기) 금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협의, 전산시스템 구축,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리 정책 보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

③ (준재정적 프로그램 단계적 축소·폐지, 2027년중) 「무역금융지원」 및 「신성장·일자리지원」 프로그램의 종료 순서, 시기별 감액 규모 등을 포함한 단계적 축소·폐지 계획 공표

□ (중장기) 「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」 및 「지방중소기업지원」 2개의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용

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의 단계별 개편 로드맵(안)



<참고>

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현황

- (개요)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, 프로그램별 한도, 한도유보분 및 대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고 동 한도 내에서 총재가 금융기관별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여 자금을 매월 배정(대출)
 - 한국은행은 지원대상 대출의 요건 등을 정하며, 은행은 차주의 신용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면서 개별 중소기업을 심사하여 대출실행 여부 및 대출실행금리를 자체적으로 결정
 - 동 과정에서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저리 자금 차입에 따른 조달 비용 경감분을 감안하여 관련 대출 취급시 대출금리를 일부 경감
- (한도 및 금리) 2026년 7월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는 30조원이며, 대출금리는 연 1.25%
- (현황) 2026년 7월 현재 3개의 상시 프로그램(무역금융지원, 신성장·일자리지원, 지방중소기업지원) 및 2개의 한시 프로그램(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, 재해복구 특별지원)을 운용 중
 -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연계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규모는 107.2조원으로 전체 은행 중소기업대출(1,132.1조원)의 9.5% 수준
 -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 지원비율(당행 자금 배정액 ÷ 금융기관의 금융중개 지원대출 관련 대출실적)은 각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으나 약 30% 수준

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별 운용 현황

(조원)

프로그램	한도	금융기관 대출실적 ¹⁾	배정실적 ¹⁾	운용기간	비 고
■ 무역금융지원	1.5	4.5	1.5	상시	· 수출금융 지원
■ 신성장·일자리지원	8.0	33.3	7.1		· 창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지원
창업기업	3.5	11.5	3.5		
일자리창출기업	3.5	21.5	3.5		
설비투자	1.0	0.3	0.1		· 2026년 11월까지 지원 예정
■ 지방중소기업지원	5.9	43.3	5.9		· 지방중소기업 지원
■ 중소기업대출안정화	0.3	-	-		· 2025년 10월 지원 종료
■ 한도유보분	14.3	26.1	14.00		
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	14.0	26.1	13.98	~27.8월	·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
재해복구 특별지원	0.3	0.03	0.02	-	· 자연재해 피해기업 지원
총 계	30.0	107.2	28.5	-	

주 : 1) 2026년 7월 배정 기준